

가용성 휴리스틱을 통한 해석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에 관한 연구

김주영 / 2017.12.21.

1. 서론

2011년 2월 1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이 폭력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폭력성을 높인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보도가 근거로 제시한 실험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고 있던 PC방의 전원을 일순간에 차단하는 것이었고, PC방 이용자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자 이에 대해 이들이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올바른 해석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미디어가 전하는 해석이 위의 사례처럼 자의적인 해석이라 할지라도, 해당 분야에 대해 확고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PC방이 확산된 것은 2000년 전후이므로, 청소년의 보호자들은 PC방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게임만을 위해 특정 장소를 이용하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PC방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특별하게 여기고, 다른 일반적인 사례와 비교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보호자들은 PC방 이용자들의 격한 반응을 무언가에 집중하던 사람을 방해하였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과 비교하며 해석하지 못하고, 결과 자체의 폭력성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위의 보도는 결국 청소년의 보호자들이 PC방의 주요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높였다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집중을 방해하는 것에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PC방 문화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보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배경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을 모두가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만으로 사실을 해석할 것이다. 휴리스틱 모델에 따르면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경우 사람들은 휴리스틱 전략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휴리스틱을 사용한 의사결정이 오류를 가짐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를 보완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기존에 연구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이 연구에서 휴리스틱을 통해 내려진 해석의 오류를 보완하는 방법을, 특히 휴리스틱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가용성 휴리스틱에 관해 제시할 것이다.

2. 올바른 해석의 도출에 있어서 배경 지식의 중요성

지식을 전달받는 사람이 적절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계이다. 이는 지식이 사실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고 적절한 해석을 덧붙임으로써 비로소 형성되는데,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배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제로도 청해할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많이 갖추수록 청해 능력이 향상되는 현상이 Weissenrieder(1987)의 연구에서 밝혀졌고, 최근에도 박기표(2001) 그리고 정혜진(2011) 등의 연구에서 재확인되었다.

특히 번역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독자마다 글의 소재에 대해 가지는 배경 지식은 다르다. 이때 독자에게 적절한 배경 지식이 부재할 경우, 독자는 글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다. 하지만 번역가

는 자신의 번역문을 읽는 독자가 번역문을 통해서 원문이 담고 있는 의미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문을 읽을 예상 독자를 파악한 다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번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김윤진, 2000) 심지어는 예상 독자의 배경 지식을 고려했는지의 여부가 번역의 질을 비평할 때에 기준이 될 유용성과 타당성이 존재한다(김가희, 2014).

그런데 이처럼 적절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사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적절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외부에서 전달받은 사실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논리를 전개할 때에, 적절한 배경 지식이 부재하거나 잘못된 배경 지식이 활용된다면, 논리 전개 중간 단계들이 근거가 없는 추정이나 잘못된 배경 지식에 기반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과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적절한 배경 지식의 부재이며, 다음으로는 적절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최혁준, 2009)임이 알려져 있다.

특히 Carrel(1983)이 밝혔고 최근에도 송석요(2004) 등에 의하여 재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영어로 작성된 글을 해석하는 경우, 독자가 적절한 배경 지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배경 지식이 거의 동원되지 못한다. 영어로 작성된 글을 해석하는 과정은 원문을 모국어로 변환하고 그 결과를 독해하는 일인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보통 변환 과정에서 영어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어의 사전적 정의만을 가지고 직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글은 비문이기 때문에 어떤 배경 지식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힘들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영어로 작성된 글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얻기가 어렵게 된다.

3. 휴리스틱 전략의 정의와 유형

위에서 밝힌 것처럼 사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이를 해석 과정에서 활용해야 하지만, 일상에서는 적절한 배경 지식이 부재하더라도 어떤 해석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인지 판단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전략이 휴리스틱이다.

휴리스틱에 관해서는 Tversky and Kahneman(1974)이 작성한 저명한 논문이 있으므로 이들이 제시한 바를 따르자면, 휴리스틱에는 가용성 휴리스틱, 대표성 휴리스틱, 그리고 기준점과 조정 휴리스틱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먼저 대표성 휴리스틱은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것의 특징이 해당 집단에 속하는 대상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가용성 휴리스틱은 자신이 보다 쉽게 접하는 것을 실제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믿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기준점과 조정 휴리스틱은 새로이 얻어진 정보에 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판단을 수정할 때, 자신이 신뢰하는 기준에 반하는 방향으로 쉽게 수정하지 못하여, 기존의 판단을 필요에 비해 너무 심하거나 부족하게 수정하는 현상이다.

휴리스틱 전략의 오류에 대해서도 역시 Tversky and Kahneman(1974)의 논문을 따르면, 휴리스틱의 개별 유형은 특징적인 오류를 가지며, 대표성 휴리스틱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이 6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가용성 휴리스틱이 4종의 오류를 유발하며, 마지막으로 기준점과 조정 휴리스틱이 3종의 오류를 유발하여 총 13개의 오류 유형이 있다.

4. 가용성 휴리스틱의 오류 유형과 보완을 위한 방법

다양한 휴리스틱 전략의 오류 유형은 서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성 휴리스틱의 오류는 주로 특

정한 전제 하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을 전제를 떼어 버리고 동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인데, 비록 특정 전제 하에서 대표적인 것이더라도, 그것이 다른 것보다 자주 연상되기 때문에 동원된다고 본다면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 경향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종속되는 기준점과 조정 휴리스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기준에 적합한 결론이 다른 결론에 비해 보다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용성 휴리스틱에 관해서만 그것의 오류 유형과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가용성 휴리스틱의 오류 유형도 마찬가지로 Tversky and Kahneman(1974)이 제시한 것을 따른다.

가용성 휴리스틱의 오류 유형에는, 첫 번째로 쉽게 떠오르는 것들 자체가 편향되어 결론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유명한 것들을 묶은 집단과 유명하지 않은 것들을 묶은 집단을 만든 다음, 이들의 구성요소를 섞어서 보여 준다고 하자. 유명하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넣어서 전체 집단을 만들더라도 사람들은 유명한 구성 요소들이 많다고 응답한다. 이러한 오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연상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혹시 자신이 다양한 결정 방안 중에서 너무 하나의 방안을 채택하는 데에 유리한 것들만을 연상하였는지 살펴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이 연상한 것이 처음부터 편향되어 있다면, 결국 자신의 의사결정은 편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두 유형은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다루기로 한다. 연상가능성에 의한 오류인데, 가능성이 높더라도 연상이 쉬우면 보다 있을 법한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이다. 이는 가능한 많은 결과를 고려한 다음, 특정 결과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고 그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예측을 하지 말고, 확률을 실제로 계산한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특정한 문자를 제시하고 해당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와 해당 문자가 세 번째 문자인 단어 중에서 어느 것이 많겠느냐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보통 해당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쉽게 연상되기 때문에, 해당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다고 답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더욱 많은 단어를 생각해 보게 한다면 처음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사건들이 혼자서만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다. 완벽한 매너를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를 배려하면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용성 휴리스틱을 사용하여 생긴 오류이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해석이 언제든 틀렸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상황마다 이러한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가면서 적용해야 한다.

5. 결론

나는 이 연구에서 가용성 휴리스틱 전략이 유발하는 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오류의 유형에 따라 제시하였다. 수학 문제의 증명과 같이 순수하게 사실과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만을 이용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우이거나,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일상적으로 접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휴리스틱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용성 휴리스틱을 사용할 때에 내가 제시한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용성 휴리스틱의 오류를 보완할 다른 방법이나, 휴리스틱 전략의 다른 오류를 보완할 방법이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된다면 우리 사회가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생활화된, 보다 합리적인 사회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용 문헌

- 김가희. (2014). '배경지식의 규범'을 적용한 '빨강머리 앤' 번역 비평. *영어권문화연구*, 7, 5-25.
- 김윤진. (2000). *불문학텍스트의 한국어번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기표. (2001). 언어 능력, 배경 지식, 문제의 종류가 영어 청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56(2), 245-263.
- 송석요. (2004). 어휘 능력, 배경 지식, 읽기 전략이 영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한국대학생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연구*, 46(4), 243-262.
- 정혜진. (2011). *한국 중학생의 어휘·문법지식 및 배경지식의 수준과 반복듣기가 영어듣기에 미치는 영향*(학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혁준. (2009). 과학 개념 학습에서 배경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치는 영향. *초등과학교육*, 28(1), 23-34.
- Carrel, P. L. (1983). Three components of background knowledge in reading comprehension. *Language Learning*, 33(2), 183-203.
-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4157), 1124-1131.
- Weissenrieder, M. (1987). Listening to the news in Spanish.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1(1), 18-27.